

삼성전자, 3분기 호실적에도 미중 갈등에 휘청

52주 신고가 찍고 하락 전환...9만1600원 마감
메모리 업황 호조...‘10만전자’ 기대감은 ‘솔솔’

삼성전자가 3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공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재격화하면서 주가가 휘청였다.

다만, 메모리 업황 호조로 인한 호실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만전자’ 시대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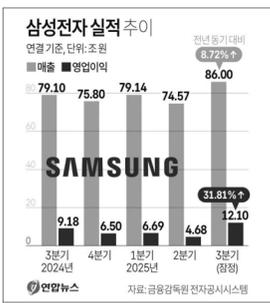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82% 내린 9만1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가장 직후 2.89% 상승한 9만6000원까

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난 2021년 1월 11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9만6800원)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오름폭은 일부 축소됐다.

앞서 이날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는 장중 9만7000원대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증권가 전망치를 17.4% 웃도는 것으로,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어선 건 2024년 2분기 이후 5분기 만이다.

매출은 8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2% 늘었고, 전 분기 대비 15.33% 증

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에 대해 일제히 기대치를 크게 웃은 ‘깜짝 실적’이라며 호평을 쏟아냈다.

그러나 장중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하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가 일며 주가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그동안 주가에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 반영되면서 이벤트 소멸 인식에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삼성전자의 이익 개선이 계속되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해 온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 후 실적 추정치와 목표주가가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번지고 있다.

한편, 코스피는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거센 상승세를 보였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재점화란 암초에 걸리면서 전장 대비 22.74포인트(0.63%) 내린 3561.81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3604.12로 개장한 직후 지난 10일 기록된 직전 장중 사상 최고치(3617.86)를 갈아치우며 3646.77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채 3620선 주변을 오르내리다 오후 12시 45분 전후부터 급락, 한때 3535.52까지 떨어졌다가 막판에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53p(1.46%) 내린 847.96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천장 없이 치솟는 금값

온스당 4133.0달러 3.3%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 우려가 일단 잦아드는 국면에서도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거듭 갈아치우면서 금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간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3.3% 오른 온스당 4133.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온스당 4018.3달러로 거래를 개시한 금 선물은 장중 한때 4137.2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비판하며 고율관세를 부과했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화 모드로 돌아서면서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했는데, ‘안전자산’인 금이 뜬금없이 함께 급등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금 가격과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최근 2년 사이에는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수혜로 동반 상승 추세를 보여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4분 현재 국내 금 시세(99.99_1kg)는 전장보다 4.88% 오른 1g당 21만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산하 기자 연합뉴스

유타그룹도 회생 신청...해상풍력 차질 우려

실적 악화에 유타디앤씨·건설·엔지니어링 계열사 3곳 적자 누적

광주·전남지역 증권 건설업체인 유타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경기 불황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면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는 전날 유타그룹 계열사인 유타디앤씨, 유타건설, 유타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유타디앤씨, 유타건설, 유타엔지니어링은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중 유타엔지니어링 측이 제출한 채권자는 금융기관, 건설업체, 법인, 개인 등 103명에 달한다.

해당 재판의 심문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 303호에서 열린다.

이중 유타디앤씨는 광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아파트와 호텔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 2년 연속 손실액이 연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유타디앤씨는 2년 연속 당기순손실 2024년 120억원, 2023년 182억원을 기록 중이다.

유타건설은 지난해 기준 사공능력평가 순위 97위의 증권 건설사로, 전국에 주택·호텔·리조트·대형 물류센터 등을 건설했다. 자체 주거브랜드 ‘유타유티레스’로

유명하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유타건설이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아파트(460세대·2026년 준공), 신창유타리버시티아파트(304세대) 등 2곳이다.

올해 4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총사업비 2조원(면적 61.26㎢·설비용량 323MW)에 달하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이 사업은 2029년 말 착공, 2031년 준공, 2032년 상업 운영을 목표로, 지난 5월 광주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법정관리로 들어가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유타엔지니어링은 증권 시공·감리업체다. 광주시청사, 전남도청사, 광주월드컵경기장, 기아챔피언스필드 등 광주의 대형 건물을 설계·감리했다.

유타엔지니어링 역시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2024년 당기순이익은 20억원으로, 1년 만에 반토막(2023년 41억)이 났다.

유타그룹 관계자는 이번 회생 신청 사유에 대해 “경영 정상화와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이라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메타버스허브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에서 ‘2025년 XR&Metaverse Fair Tokyo 공동관’을 운영했다.

전남 3개 기업, ‘XR&메타버스 페어 도쿄’서 홍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시회 공동관 운영...글로벌 진출 확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인용)은 ‘메타버스허브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에서 ‘2025년 XR&Metaverse Fair Tokyo 공동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기준 7개국에서 900개 이상 참여한 바가 있는 XR·메타버스 기술 활용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문 전시회로, 메타버스 기술·콘텐츠, 하드웨어, 디지털 트윈, 가상플랫폼 콘텐츠 전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다.

이번 한국 공동관에서 이음 5G MEC 실증 기업 3개 사(와이그림, 위치즈, 오아시스스튜디오)는 해외 진출 확대와 투자유치 촉진을 목표로 전시·홍보 지원,

바이어 상담·매칭, 전문 통역 지원 등 3일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 결과 120여건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계약 수출 상담실적을 거두고 글로벌 진출과 수출 판로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바이어 매칭과 네트워킹 기술 창출을 위해 다양한 현장 전략이 실행됐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사후 마케팅에 활용해 일본 시장 내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LG전자 인도법인, 인도 증시 상장

LG전자 인도법인이 14일 인도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교두보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LG전자는 이날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NSE)에서 조주완 CEO, 김장태 최고재무책임자(CFO), 전홍주 인도법인장, 송대현 인도법인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과 현지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법인 상장 및 미래비전 발표 행사를 열었다.

이번 상장을 위해 LG전자는 인도법인 발행주식의 15%에 해당하는 1억181만 5859주를 구주매출로 처분했다.

LG전자 인도법인의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주당 1140루피(한화 약 1만8000원)로 책정됐다.

주식배정 청약에는 인도 기업공개(IPO) 역사상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려 공모 주식수의 54배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 기준 LG전자 인도법인은 1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연합뉴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리세기 풍요로운 미래”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진성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주)진성이엔피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창동 734-7
 TEL | 062-953-8342
 FAX | 062-953-2742
 E-mail | moojin@newmoojin.com

원자력에서 검증된
MJ텐서너

▶ 고압 1500bar, 2500bar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업계에서 20년동안 쌓아온 품질 및 기술이 적용된 제품 - MJ텐서너

진성과 손을 잡고 국내 및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해나갈 에이전트를 찾습니다